

## 중삼각 구축과 한국-후베이성 협력 세미나 참석

- 이문형 선임구위원(국제산업협력센터)

### I. 출장개요

1. 출장자: 이문형 선임연구위원
2. 출장기간: 2012년 9월 19일- 9월 22일(3박 4일)
3. 출장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4. 출장목적: KIEP-HASS 세미나 <“중삼각(中三角)” 구축과 한국-후베이(湖北)성 협력> 참석과 자체 과제 “중국 중서부 3성 산업별 진출 전략 작성을 위한 관계자 면담

※ KIEP-HASS 세미나 <“중삼각(中三角)” 구축과 한국-후베이(湖北)성 협력>는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과 후베이성정부가 공동 개최하는 교류행사인 ‘한강의 정(漢江情)’의 일환으로 열리는 것으로, 주 우한총영사관과 후베이성정부가 협조기관으로 참여하며, 양국 학자·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한국과 후베이성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함.

### II. 출장일정

#### □ 세미나 일정

일자	행선지	활동사항
9월 19일 (수)	인천-상하이-우한	이동(인천-상하이-우한)
	우한 웨스틴 호텔	‘한강의 정’ 행사 개막식 및 환영 만찬 참석
9월 20일 (목)	우한 르네상스 호텔	KIEP-HASS 국제세미나 개최
	우한 르네상스 호텔	주우한대한국총영사관 주최 만찬 참석
9월 21일 (금)	우한-관계기관 방문	KOTRA, 우한대학
9월 22일 (토)	우한-인천	이동

#### ○ 9. 19. 한국 대표단 중국도착

- 17:40-19:40 “한강의 정(漢江情)” 개막식 및 만찬(한국 대표단 전원 참석)
- 참석 인원: 400여명(한국·후베이성 정부인사 및 기업인 등)
- 주요 행사: 후베이성 당서기 개막사, 후베이성 성장·충청북도지사 건배사

#### ○ 9. 20. 세미나 : 각 세션 발표 2인(韓 1, 中 1) 및 토론 4인(韓 2, 中 2)

- 9:00~9:30 개막식: 내빈 소개, 양측 대표 축사
- 9:30~9:45 기념사진 촬영
- 9:50~10:50 제1세션: “중삼각”구축과 후베이성 발전 환경
  - 발표: [韓]정지현 부연구위원(KIEP)
  - [中]진준원(秦尊文) 부원장(HASS)
  - 토론: [韓]최낙섭 수석연구원(SK China 경영경제연구소)
  - 장상해 관장(KOTRA 우한무역관)
  - [中]쑹야평(宋亞平) 원장(HASS)
  - 류환장(劉傳江) 교수(우한대)

- 10:50~11:50 제2세션: 한국-후베이성 산업협력 현황과 전망
  - 발표: [韓]이문형 소장(KIET)
  - [中]왕홍장(王洪章) 부순시원(후베이성 경제·정보화 위원회)
  - 토론: [韓]류기천 부소장(중국현대차경영연구소)
  - 박진희 연구원(KIEP)
  - [中]천즈보(陳池波) 원장(중남재경정법대)
  - 양앤린(楊艷琳) 교수(우한대)
- 12:00~13:30 오찬
- 13:30~14:30 제3세션: 중서부 내수 확대와 산업구조 조정
  - 발표: [韓]김주영 부장(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中]장젠화(張建華) 부원장(화중과기대)
  - 토론: [韓]이상훈 부연구위원(KIEP)
  - 한동훈 교수(가톨릭대)
  - [中]펑즈민(彭智敏) 소장(HASS)
  - 저우진타이(鄒進泰) 소장(HASS)
- 14:30~15:30 제4세션: 한중 FTA 현황과 전망
  - 발표: [韓]양평섭 팀장(KIEP)
  - [中]자오진핑(趙晉平) 부부장(국무원발전연구센터)
  - 토론: [韓]정환우 연구위원(KITA 국제무역연구원)
  - 이문형 소장(KIET)
  - [中]류하이윈(柳海雲) 교수(화중과기대)
  - 장화룡(張華容) 부원장(중남재경정법대)
- 15:30~15:50 휴식
- 15:50~16:50 제5세션: 한중수교 20주년 회고와 전망
  - 발표: [韓]한동훈(가톨릭대)
  - [中]파오젠이(朴健一) 원장조리(중국사회과학원)
  - 토론: [韓]이승신 소장(KIEP)
  - 김주영 부장(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中] 샤안링(夏安凌) 교수(화중사법대)

- 16:50~17:30 폐막식

### III. 주요 복명 내용

1. '한강의 정(漢江情)' 행사 개막식 및 환영 만찬, 주우한총영사관 주최 만찬 참석
  - 행사에 참석한 다양한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네트워킹을 구축함.
  - 약 400여 명이 본 행사에 참석하였으며, KIEP측은 다양한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네트워킹을 구축함
2. KIEP-HASS 세미나 개최
  - (1) 개막식
    - 인한닝 후베이성 공산당 상무위원회 상무위원·선전부 부장은 한국과 후베이성이 한강이라는 강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한중수교 20년 동안 양국이 괄목상 대할 만한 경제 교류 및 협력을 가져온 것과 비교할 때 한국과 후베이성의 교류가 매우 적었음을 지적함. 이에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연구활동이 한국과 후베이성의 경제 교류 확대를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힘.
    - 김상겸 KIEP 부원장은 중국의 내수확대 전략, 내륙지역 개발, 도시화 추진 등으로 향후 중서부지역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한국은 기존의 동부지역 중심의 한중 협력관계를 중서부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힘. 중서부 내륙지역의 주요한 성장거점을 파악하고 협력이 가능한 지역, 상호 보완적인 산업 분업관계, 효율적인 협력 방식 등을 발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본 세미나가 중국 내륙 성장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삼각”의 구축 현황과 성장잠재력을 이해하고, 한국과의 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양측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확대시키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류위탕 HASS 부원장은 본 세미나가 한국과 후베이성의 협력 확대를

위해 개최된 것으로, 이를 위해 작년 HASS가 KIEP를 방문하였고, 올해에는 KIEP의 채욱 원장이 후베이성을 방문하는 등 양측간에 사전에 많은 조율과 준비가 있었음을 설명함. 앞으로도 양 기관이 학술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이 같은 교류를 통해 한국기업의 중부지역, 후베이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한광섭 주우한대한국총영사관 총영사는 중부지역은 아직 한국과 많은 교류가 있는 지역은 아니나 향후 이 지역의 중요도가 점차 높아질 것이기에, 본 세미나를 통하여 양측의 교류 확대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밝힘.

(2) 1세션: “중삼각”구축과 후베이성 발전 환경

- 친준원 HASS 부원장은 “중삼각”은 우한, 창사, 난창을 중심으로 하는 창장 중류 도시군을 뜻하는 것으로, 후베이성, 후난성, 장시성이 각각의 비교우위에 따라 일체화된 대도시군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함. 또한 중삼각의 형성은 중국 국가경쟁력 강화, 중부굴기 전략, 지역협조 발전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밝히며, 최근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설명함.
- 정지현 KIEP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부연구위원은 후베이성이 외국 자본과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내수시장 유통판로 개척 지원 서비스와 같은 차별화된 해정지원을 제공하고, 미래산업을 공동 육성하는 것이 한국과 후베이성 협력확대를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아이디어를 제시함.
- 양측의 토론자들은 중삼각 도시군의 발전이 중국 전체에서 갖는 의미가 크며, 특히 자원이 많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후베이성이 중삼각 지역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함. 한국의 대후베이성 투자 확대는 한국과 후베이성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나, 경제협력의 확대를 위해서는 후베이성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방과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힘.

(3) 2세션: 한국-후베이성 산업협력 현황과 전망

- 왕홍장 후베이성 경제·정보화위원회 부순시원은 후베이성에 투자한 한국기업은 총 912개로, 우한시와 상양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60% 이상이 전자, 식품, 건축, 자동차부품, 신소재 등과 같은 제조업 기업이라고 현황을 소개함. 또한 후베이성이 전통 우위산업을 발전시키고 전략적 신흥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의 선진기술과 자본은 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함. 향후 한국과 후베이성은 그동안의 협력을 통해 쌓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윈윈하는 협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함.

- 이문형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센터 소장은 한중교역의 폭발적 증가에도 한국과 후베이성 간의 교역은 여전히 미약한 상태라 현황을 소개함. 그러나 한국과 후베이성은 현재 산업간 분업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후베이성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를 얻고, 후베이성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와 중부지역발전의 선도자 역할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 지역간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힘.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제도적 협력기반과 민간교류 확대, 한국기업들의 후베이성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대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 양측의 토론자들은 한국과 후베이성의 산업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또한 산업협력을 위해서는 한국과 후베이성이 비교우위를 갖는 산업이 다르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는 전면적인 협력의 “장”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힘. 이를 위해서는 후베이성 정부의 한국 산업단지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과 한국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며, 한국 또한 후베이성 우위산업들의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4) 3세션: 중서부 내수 확대와 산업구조 조정

- 장젠화 화중과기대 경제학원 부원장은 중국이 현재 공업화 중간 단계

로 산업구조와 수요구조가 신속히 조정되는 중요한 시기에 처해있다고 설명함. 중서부지역은 산업구조와 수요구조가 모두 동부지역 및 중국 전체와 차이가 있기에, 중서부지역 산업구조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이러한 차이가 생겨나는 원인 탐색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힘.

- 김주영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부장은 최근 중서부 지역 공업기업의 생산증가율이 동부지역을 상회하면서, 중서부지역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내수시장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소개함. 그러나 동부와 달리 중서부지역은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지출이 여전히 많으며, 여전히 지방정부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힘.

- 양측의 토론자들은 중서부 지역의 내수확대를 위해서는 구매력, 즉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산업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동의함. 중서부 지역에 부족한 경공업과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화를 촉진한다면 중서부 지역의 내수확대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함.

(5) 4세션: 한중 FTA 현황과 전망

- 자오진핑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대외경제연구부 부부장은 한국과 중국의 양자간 무역과 투자는 크게 증가해왔으나, 무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며, 무역마찰이 빈번하고, 한국의 대중 직접투자가 점차 줄어드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힘. 한국과 중국이 체결을 준비 중인 FTA를 통해 양국 모두 성장률 증가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바탕으로 한중일 FTA 등 동북아 지역 경제 일체화를 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양평섭 KIEP 중국팀·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단장은 한중 FTA는 한중 경제 교류의 구조적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함. 또한 한중 FTA를 통해 국제분업을 잘 실현한다면 양국간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경제통합의 시발점으로서 동북아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 양측의 토론자들은 한중 FTA가 조속히 체결돼야 한다는 점과 한중 FTA 체결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롤 모델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동의함. 다만 FTA협상 과정과 범위, 체결시기에 대한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또한 한국측은 한중FTA 체결과정 중에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설명하고, 중국측은 한중 FTA 체결은 지방정부인 후베이성에의 영향도 크다며, 이를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6) 5세션: 한중수교 20주년 회고와 전망

- 파오젠이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국제전략연구원 원장조리는 한중 교류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방면에 이어 큰 발전을 거듭해왔으나, 각 영역마다 EEZ문제, 탈북자 문제, 무역 투자 불균형 문제 등의 문제점 역시 존재한다고 밝힘. 향후 한국과 후베이성의 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양측 고위인사간 정기적 방문, 상호신뢰 구축, 첨단기술산업 및 관광분야 협력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며, 후베이성 내 조선족 인재의 육성과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한동훈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는 한중관계가 대부분의 영역에 있어서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발전해왔지만, 경제분야의 협력성고가 가장 두드러진다고 설명함. 그러나 세계경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한중 경제 협력 패턴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한중 FTA의 체결이 필요하며, 한중 FTA의 체결은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번영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양측의 토론자들은 사회문화적 분야에서도 한-중, 한-후베이성간에 활발히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하며, 지금까지 이렇게 진되어 온 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내실있는 교류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힘.